

동인천역 가새표

빨강 가새표가 나를 멈춘다.  
한 무리의 표정들이 계단 따라  
흘러내리고..

번잡, 피곤, 무표정..  
그 뒤에 살포시 따라오는 미소 하나에  
덩달아 내 입꼬리 헤벌쭙 오른다

움직이는 계단 따라.  
친구와의 추억도 흐르고,  
병싯 미소 짓는 남편의 다정함도  
청춘의 치기마저 반추되어 계단에 머무른다.

여기는 동인천역 개찰구!  
가새표 뒤에 있는 기다림이 좋다.  
머물던 시간에 정들고 정들에  
여기 동인천이 저영말 좋다.

14기 호 순 복